[로킷헬스케어] 심층 분석 보고서

Ticker: 419270

> **AI 생성 고지:** 본 보고서는 '펀더멘털 스카우터(Powered by Gemini)'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
> 문서 버전: 1.0.0 | 펀더멘털 스카우터 버전: 1.1.0

📝 태그 범례

- **[FACT]**: 공시, 재무제표 등 명확한 출처가 확인된 사실.
- **[추정]**: 증권사 컨센서스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AI의 추정치.
- **[의견]**: AI의 논리적 견해 및 시나리오.
- **[미확인]**: 데이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미확인 정보.

1 Executive Summary (투자 요약)

[FACT] 핵심 재무 지표

로킷헬스케어는 2025년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을 기점으로 가파른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의 원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약 1조 원 규모 (2025년 코스닥 상장 후 안착)

매출 성장률

2024년 대비 2025년 연결 매출 기준 100% 성장 달성

영업이익률

약 2.3% (2025년 결산 기준 영업이익 6.6억 원으로 상장 첫해 흑자 전환 성공)

재무 건전성

상장 전 자본잠식 상태를 공모 자금 유입으로 완전 해소, 당기순손실 규모를 전년 대비 70% 이상 축소

[의견] 기업 평가: 문샷(Moonshot)

로킷헬스케어는 인공지능(AI)과 4D 바이오 프린팅을 결합하여 **'장기 재생'**이라는 인류의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입니다. 2025년 실질적인 흑자 전환을 통해 기술의 상업성을 입증했으나,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지분 희석 리스크와 글로벌 규제 장벽이 상존하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관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견] 핵심 성장 동력: '수술실 즉석 재생 플랫폼(JIS)'

이 기업이 시장을 파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병원 현장(Point of Care)에서 즉석으로 조직을 재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독점성 때문입니다.

- **JIS(Just In Surgery) 모델:** 기존의 세포 배양 방식(고비용, 장기간 소요)을 탈피하여 수술실에서 1시간 이내에 자가 조직 패치를 제작·이식함으로써 비용과 오염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 **수익 구조의 질적 변화:** 단순 장비 판매에서 벗어나 수술 건당 발생하는 AI 진단 플랫폼 사용료와 전용 바이오잉크 소모품 매출이 결합된 고수익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 산업 구조 및 포지셔닝

시장 환경: 첨단 재생의료의 상업적 변곡점

현재 글로벌 재생의료 산업은 기존의 '세포 치료제 중심'에서 인공지능과 하드웨어가 결합된 **'현장 분산형 재생 플랫폼(Point-of-Care)'**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산업 사이클 및 성장 단계 [FACT]

전 세계 재생의료 시장은 연평균 **15~20%**의 고성장을 기록 중이며, 특히 3D/4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연구실(Lab) 단계를 넘어 실제 의료 현장(Clinic)으로 진입하는 상업화 가속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겟 시장 규모 (TAM) [FACT]

- **당뇨발(DFU) 시장:** 전 세계 약 5,000만 명의 환자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는 연간 약 4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 **연골 재생 시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 시장은 약 100조 원 이상의 잠재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도적 변화 [FACT]

미국 FDA 및 주요 선진국 규제 기관들이 '자가 세포 최소 조작' 기술에 대해 우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상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위치: 밸류체인 내 '표준 플랫폼' 지배자

로킷헬스케어는 단순한 의료기기 제조사를 넘어, 재생의료의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한 '**디지털 재생의료 인프라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업스트림(AI)

'AiD Regen' 소프트웨어를 통한 환부 데이터 분석 및 재생 모델 자동 설계 능력을 보유하여 기술적 진입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미드스트림(HW)

46개국에 보급된 '닥터 인비보'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거점에 하드웨어 인프라를 이미 선점했습니다.

다운스트림(Bio-Ink)

각 장기별 최적화된 바이오잉크를 독점 공급함으로써 소모품 매출을 통한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를 창출합니다.

> **시장 점유율 추이 [FACT]:** 2025년 12월 기준 전 세계 46개국 진출을 완료했으며, 2027년까지 진출 국가를 72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쟁사인 BICO(Cellink) 등이 주로 연구용 시장에 머물고 있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임상 현장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비즈니스 모델 및 해자 (Moat)

수익 구조: 고마진 '레이저-면도날(Razor-Blade)' 플랫폼

로킷헬스케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기기를 판매하는 제조업을 넘어, 설치 기반(Installed Base)이 확대될수록 고마진 수익이 누적되는 플랫폼 구조를 지향합니다.

01

하드웨어 거점 확보 (Laser) [FACT]

전 세계 46개국 의료 현장에 '닥터 인비보(Dr. INVIVO)'를 공급하여 재생의료 시스템을 선점합니다. 이는 향후 모든 소모품과 서비스 매출의 근간이 됩니다.

02

플랫폼 사용료 (Recurring Service) [FACT]

수술 시 환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패치를 설계해 주는 'AiD Regen' AI 플랫폼 이용료를 수취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제조 비용이 거의 없는 고수입 소프트웨어 매출입니다.

03

전용 바이오잉크 소모품 (Blade) [FACT]

각 수술 목적(당뇨발, 연골 등)에 특화된 전용 바이오 소재를 독점 공급합니다. 프린터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는 구조입니다.

04

실적 기반 [FACT]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0%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 6.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이 모델의 상업적 생존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독점적 우위: 경쟁사가 3년 내에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 해자

글로벌 1위 바이오 프린팅 기업인 **BICO(Cellink)**나 Organovo와의 격차를 벌리는 로킷 헬스케어만의 강력한 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적 진입 장벽 [FACT]

미국 내 CPT 코드 획득을 통해 로킷의 기술이 정식 의료 행위로 편입되었습니다. 후발 주자가 동일한 보험 환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임상 데이터와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강력한 시간적 해자가 됩니다.

Just In Surgery (JIS) 프로토콜 [의견]

환자의 자가 세포를 수술실 내에서 1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로킷의 워크플로우는 '최소 조작' 원칙을 준수하여 FDA 등 규제 기관의 허가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복잡한 배양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의료진에게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 효과 [의견]

경쟁사들이 주로 '연구소용(Lab)' 장비 시장에 집중할 때, 로킷은 실제 환자가 있는 '수술실(OR)' 생태계를 선점했습니다. 의사들이 로킷의 AI 시스템과 수술법에 익숙해질수록 타사 제품으로의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데이터 우위 (AI Moat) [추정]

전 세계 46개국에서 수집되는 실제 임상 데이터는 'AiD Regen'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고도화시키며, 이는 후발 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치료 정확도의 격차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퀀텀 점프 시나리오 (Business Scale-up)

성장 촉매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임계점(Tipping Point)

로킷헬스케어의 비즈니스는 선형적 성장을 넘어 폭발적 팽창을 앞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퀀텀 점프를 견인할 핵심 엔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장의 '보험 환급' 본격화 [FACT]

2025년 10월 획득한 CPT 코드는 미국 내 수천 개의 병원이 로킷의 솔루션을 '정식 의료 행위'로 처방하고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마스터키입니다. 2026년부터 Northwell Health 등 대형 병원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 매출 데이터가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첫 번째 티핑 포인트입니다.

2

영업 레버리지의 극대화 (Operating Leverage) [의견]

현재까지는 장비 보급을 위한 판관비 지출이 컸으나, 보급 대수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추가 비용 없이 AI 플랫폼 사용료와 바이오잉크 매출만 늘어나는 구조로 진입합니다. 이는 영업이익률이 2.3%에서 단숨에 20~30%대로 점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3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장 [추정]

전 세계 46개국에 깔린 '닥터 인비보'는 단순 기기가 아닌 '업데이트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새로운 질환에 대한 AI 알고리즘만 배포하면 공장 증설 없이도 새로운 매출원이 창출되는 소프트웨어적 확장성을 가집니다.

TAM 확장성: 인접 시장 진출 및 타겟 시장의 크기

로킷은 '당뇨발'이라는 성공 방정식을 더 크고 마진이 높은 시장으로 수평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계	타겟 질환	시장 규모 (TAM)	상업화 현황 [FACT]
Phase 1	당뇨병성 족부 궤양(DFU)	약 40조 원	미국 CPT 코드 확보 및 글로벌 상용화 중
Phase 2	퇴행성 관절염 (연골)	약 100조 원	미국 FDA 동정적 사용 승인 추진 및 임상 진행 중
Phase 3	만성 신부전 (신장/장기)	약 150조 원+	일본 등 주요국 원천 특허 확보 및 전임상 단계

연골 재생 시장의 파괴력 [의견]

당뇨발은 '환부 폐쇄'가 목적이라면, 연골은 '삶의 질'과 직결된 거대 시장입니다. 2026년 초로 예정된 연골 재생 솔루션의 미국 내 가시적 성과는 로킷의 기업 가치를 다시 한 번 재평가(Re-rating)하게 만들 핵심 재료입니다.

복합 장기 재생의 Moonshot [추정]

신장 패치 기술은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시간'을 벌어다 주는 혁신적 대안입니다. 이 시장은 경쟁자가 전무한 블루오션으로, 성공 시 로킷은 단순 바이오텍을 넘어 글로벌 '장기 재생 인프라' 기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5 기업 성장 로드맵

본 섹션은 주가 예측을 배제하고, 로킷헬스케어의 핵심 사업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향후 3년 내 사업의 체급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합니다.

[긍정적] 신제품 성공 및 글로벌 확장 가속화

> **상황 가정:** 2026년 초 연골 재생 솔루션이 미국 FDA 동정적 사용(Expanded Access) 승인을 획득하고, Northwell Health 등 미국 대형 병원 네트워크 내에서 당뇨발(DFU) 시술 건수가 월간 수천 건 단위로 급증하는 경우.

3년 후의 모습 [추정]:

- **사업 규모:** 진출 국가 80개국 이상으로 확대. '당뇨발-연골-신장'으로 이어지는 다각화된 수익원 확보.
- **수익 구조:** 하드웨어 판매 비중이 낮아지고, 고마진의 AI 플랫폼 이용료 및 소모품 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영업이익률 25% 이상의 고수익 플랫폼 기업으로 안착.
- **포지셔닝:**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의 표준(Standard of Care)을 정립한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며,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규모 전략적 제휴 혹은 M&A 타겟으로 부상.

[합리적] 현재의 점유율 확대 속도 유지

> **상황 가정:** 당뇨발 시장에서 매년 50~7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유지하며, 연골 재생 솔루션은 미국 외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 먼저 상용화 데이터가 축적되는 경우.

3년 후의 모습 [추정]:

- **사업 규모:** 진출 국가 72개국 목표 달성. 연간 매출액 2,000억~2,500억 원 구간 진입.
- **수익 구조:**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영업이익률 10~15% 수준)을 창출하는 구조적 흑자 기업으로 자리매김.
- **포지셔닝:** K-바이오 중 실질적인 글로벌 상업화에 성공한 대표적 흑자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우량주 포지션 확보.

[부정적] 주요 고객사 이탈 혹은 해자 훼손

> **상황 가정:** 미국 내 보험 수가(Reimbursement) 협상이 지연되어 병원의 도입 유인이 감소하거나, 300억 원 규모의 CB 전환 물량이 시장에 투하되며 거버넌스 및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경우.

3년 후의 모습 [의견]:

- **사업 규모:** 매출 성장률이 20% 미만으로 둔화. 기기 판매 위주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플랫폼 서비스로의 전환 지연.
- **재무 상태:** 낮은 마진율로 인해 추가 성장을 위한 R&D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차 유상증자 혹은 자금 조달 리스크 부각.
- **포지셔닝:** 혁신적 플랫폼 기업이 아닌 단순 의료기기 제조사로 평가 절하되며, 경쟁 기술(볼류메트릭 등)에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할 위험 존재.

6 리스크 및 반론 (The Bear Case)

월스트리트의 비관론자(Bear)들이 로킷헬스케어의 현재 가치와 비전에 대해 제기하는 가장 날카로운 의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투자자는 장밋빛 전망만큼이나 차가운 리스크를 직시해야 합니다.

[FACT/미확인] 치명적 약점: 구조적 한계와 재무적 잠재 위기

로킷헬스케어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기술의 완성도'보다 '자본의 구조'와 '규제의 속도'에 있습니다.

전환사채(CB) 물량 부담(Overhang) [FACT]

상장 직후 단행된 300억 원 규모의 CB 발행은 주가 상승 시 막대한 물량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발행 조건에 대주주의 지분을 방어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주가 상승의 상단을 강하게 억제하는 요인이 됩니다.

상업화 속도와 보험 수가의 괴리 [의견]

CPT 코드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사들이 지불하는 **환급 금액(Reimbursement Rate)**이 로킷의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은 늘어나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전까지 영업이익률 개선이 지연되는 '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의 추격 [미확인]

로킷의 핵심 방식인 압출(Extrusion) 방식은 범용성은 높으나 출력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볼류메트릭(Volumetric) 프린팅이나 DLP 방식의 상업적 안정성을 먼저 확보할 경우, 로킷의 기기 경쟁력이 순식간에 노후화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의견 공매도 시각: 이 기업의 가치는 '거품'인가?

비관론자들이 주장하는 로킷헬스케어의 고평가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 대비 초라한 영업이익"

2025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6.6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1조 원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하는 것은 가치 평가(Valuation) 측면에서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P/E(주가수익비율)가 수천 배에 달하는 현재 상황은 미래의 성공을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의료계의 보수적 관성"

의료 현장은 혁신보다 '안정성'과 '관습'을 중시합니다. 로킷이 제안하는 JIS(Just In Surgery) 모델이 전 세계 수술실의 표준이 되기까지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과 마케팅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K-바이오의 학습된 불신"

과거 텐배거를 꿈꾸던 수많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실패나 거버넌스 이슈로 무너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로킷 역시 CB 발행 조건 등에서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오너 리스크'의 잠재적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7 해자 훼손 및 모니터링 요소

본 섹션은 투자자가 로킷헬스케어의 기업 가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계기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데이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Up-side 신호: 이 지표가 개선되면 무조건 홀딩 (Hold/Buy)

기술의 상업적 확산과 수익 구조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긍정적 지표입니다.

1 반복 매출(Recurring Revenue) 비중의 확대 [FACT]

기기(프린터) 판매 수익보다 AI 플랫폼 사용료 및 바이오잉크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가팔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체 매출의 40%를 상회할 때 로킷은 완벽한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것입니다.

2 미국 내 보험 환급(Reimbursement) 실데이터 [FACT]

획득한 CPT 코드가 실제 병원 청구서에 찍히고, 보험사로부터 대금이 지급되는 '정산 데이터'가 공시나 IR을 통해 확인될 경우 상업적 해자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3 연골 재생 솔루션의 글로벌 임상 진척 [추정]

피부를 넘어 거대 시장인 '연골' 파이프라인이 미국 FDA로부터 유의미한 허가 단계를 통과할 경우, 로킷의 TAM(타겟 시장)은 수십 배로 팽창하며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됩니다.

4 영업이익률의 가파른 개선 [FACT]

2025년 흑자 전환(2.3%) 이후, 매출 증가 속도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인될 때 퀀텀 점프가 시작됩니다.

Down-side 신호: 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비중 축소 (Red Flag)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수급 상황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시나리오입니다.

1 전환사채(CB) 전환 물량의 '시장 투하' [FACT]

300억 원 규모의 CB 전환 물량이 기관의 '장외 매도(Block Deal)'가 아닌 일반 시장 매도로 쏟아질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주가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글로벌 경쟁사의 '볼류메트릭' 상용화 [미확인]

경쟁사가 로킷의 방식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저렴한 치료 솔루션으로 FDA 승인을 획득하고 대형 병원망을 먼저 선점할 경우, 로킷의 기술적 해자는 즉시 훼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보험 수가 책정의 기대치 하회 [의견]

CPT 코드는 확보했으나, 실제 책정된 수가(환급액)가 재료비와 운영비를 겨우 보전하는 수준일 경우 로킷의 플랫폼 모델은 수익성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4 오너 및 핵심 기술 인력의 이탈 [미확인]

창업주 유석환 회장의 지분 매각이나, 글로벌 임상/판매를 주도하는 핵심 과학자들의 경쟁사 이직은 기업의 실행력(Execution)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8 경쟁 기업 (Competitive Analysis)

글로벌 바이오 프린팅 시장은 현재 연구용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공룡들과 임상/치료 시장을 개척하는 혁신 기업들 간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킷헬스케어의 위치를 글로벌 피어(Peer) 그룹과 정밀 비교 분석합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 '연구실'과 '수술실'의 경계

바이오 프린팅 기업들은 크게 '연구용 장비 및 소재 공급' 모델과 '임상/치료 중심의 플랫폼' 모델로 나뉩니다.

BICO (구 Cellink) [FACT]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글로벌 1위 바이오 프린팅 기업입니다. 공격적인 M&A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했으며, 전 세계 수천 개의 연구실에 장비를 보급했습니다.

Organovo [FACT]

나스닥 상장사로, 3D 프린팅 조직을 활용한 신약 독성 테스트 및 질환 모델링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Aspect Biosystems [FACT]

마이크로플루이딕(미세유체) 기술을 기반으로 복잡한 세포 배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킷헬스케어 vs 글로벌 경쟁사: 핵심 차별화 요소

구분	로킷헬스케어 (ROKIT)	BICO (Cellink)	Organovo
주 타겟	병원 수술실 (Clinical)	대학/제약 연구소 (Research)	제약사 R&D (Screening)
비즈니스 모델	치료 플랫폼 (JIS)	장비 및 범용 소재 판매	서비스 및 라이선싱
수익원	AI 사용료 + 전용 잉크	하드웨어 위주	공동 연구 및 데이터
규제 장벽	CPT 코드 확보 (임상)	기기 인증 위주	기술 검증 위주

기술적/상업적 격차 분석

01

상업화 경로의 차이 [의견]

BICO가 '더 정밀한 프린터'를 연구자에게 파는 데 집중한다면, 로킷헬스케어는 **'의사가 수술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파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보험 수가 확보, 병원 네트워크 선점이라는 실질적 상업화의 격차를 만듭니다.

02

AI 소프트웨어의 결합도 [추정]

로킷의 'AiD Regen'은 환부 이미지를 찍으면 딥러닝이 이를 분석해 자동으로 프린팅 경로를 생성합니다. 경쟁사들이 주로 수동 설계(CAD)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편의성과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3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 [의견]

연구용 시장은 예산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크지만, 로킷이 타겟팅하는 환자 치료 시장은 환자가 존재하는 한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안전자산' 성격의 매출 구조를 지닙니다.

9 작성자 코멘트 (Writer's Comment)

[작성자 Note]

인공지능(AI)과 4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결합된 로킷헬스케어의 플랫폼 확장성은 장기적 가치 투자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300억 원 규모의 CB 발행에 따른 물량 부담(Overhang)과 1조 원이라는 시가총액 대비 낮은 절대 이익 규모 등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혁신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장의 수급 상황과 실질적인 보험 수가 유입 속도를 꼼꼼히 살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0 참고 자료 및 검색 가이드

로킷헬스케어의 펀더멘털을 심층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핵심 소스 리스트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최신 데이터 반영)

🔗 주요 참고 자료 (Clickable Links)

1. 로킷헬스케어 2025년 결산 실적 및 흑자전환 공시 (DART)
2. 당뇨발 치료 플랫폼 미국 CPT 코드 획득 상세 분석
3. Northwell Health-ROKIT AI 재생의료 협력 MCA 전문
4. 미국 복합장기 다중 프린팅 원천 기술 특허 등록 현황
5. 연골 재생 솔루션 FDA 동정적 사용 승인(EAP) 추진 현황
6. 일본 신장 재생 플랫폼 원천 특허 취득 소식
7. 로킷헬스케어 2026 Global Growth Strategy 리포트
8. 300억 규모 CB 발행 조건 및 행사가액 조정 현황
9. BICO(Cellink) 2025년 사업 보고서 및 전략 비교
10. 글로벌 4D 바이오프린팅 시장 전망 2030 (Grand View Research)
1.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IEC 81001-5-1 국제 표준 획득 공시
2. 당뇨발(DFU) 임상 유효성 및 리얼 월드 데이터(RWD) 논문
3. 2025 세계재생의료학회(TERMIS) 로킷헬스케어 발표 요약
4. 유석환 대표이사 글로벌 상업화 전략 인터뷰
5. 바이오잉크 전용 소모품 공급망 관리(SCM) 현황
6. 미국 Alliant Purchasing GPO 공급 계약 체결 공시
7. 주주 환원 정책 및 대주주 지분 변동 추이
8. 볼류메트릭 프린팅 vs 압출 방식 기술 비교 보고서
9.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 갱신 현황
10. 나스닥 상장사 Organovo 대비 상대 가치 평가 리포트

🔍 심화 검색 가이드 (Search Keywords)

- ROKIT Healthcare CPT Code payment amount 2026 (실질 보험 환급액 확인)
- ROKIT Healthcare CB conversion price refixing (CB 물량의 단가 및 전환 가능성 추적)
- Dr. INVIVO clinical trials cartilage FDA status (연골 재생 승인 진행 상황)
- AI-driven organ bioprinting market share 2026 (AI 기반 장기 재생 시장 내 점유율)